

##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영<sup>†</sup>

동서울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유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722명(남학생 248명, 여학생 474명)의 고등학생이었고,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S-척도),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한 개의 경쟁모형을 구성하여 남녀 집단별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의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자기결정성동기이론

\* 본 연구는 2011년도 동서울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영, 동서울대학교 교양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E-mail : key555@dsc.ac.kr

오늘날 인터넷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 지는 등 인터넷은 계속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확산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4년 6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그해 13만 8천명이던 인터넷 이용자수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으로 인해 2010년 12월에는 약 3천 7백 만 명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77.8%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이러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폭넓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터넷이 갖고 있는 익명성, 탈개인화, 접촉의 용이성 때문에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뿐 아니라(김은정, 2005; 노안영, 정민, 2011; 서주현, 2001),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폭력(노안영, 정민, 2011)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은 만 16~19세 청소년이 12.4%로 성인 5.8%의 중독률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성인 역할에 대한 준비 등과 같은 다양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놀이문화의 부재에 따른 현실상황에서 인터넷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공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장재홍, 유정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중독현상으로 등교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성적이 하락하고 가정에서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대인기피 현상을 보이며, 신체적으로 시력저하, 두통, 불면, 근육긴장, 소화불량, 수면부족 등의 현상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 공격성, 충동성, 외로움이 증가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권재환, 2005).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와 그에 근거한 치료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다룬 연구(Holden, 2001), 인터넷 중독치료를 위한 연구(Young & Case, 2004)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Hur, 2006),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환경적 변인과의 관련성 연구(김경신, 김진희, 2003; 김종원, 조옥귀, 2002), 인터넷 중독의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는 연구(류진아, 김광용, 2004), 인터넷 진단기준에 관한 연구(Young, 1996),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김은정, 오승근, 이세용, 2003), 인터넷 중독의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이정연, 최영선, 2002), 인터넷 중독의 결과에 관한 연구(박희서, 2010) 등이 그것이다.

선행연구들로부터 청소년에게 있어서 개인 변인이나 가정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 인터넷 환경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미영, 2002).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인터넷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변인 기저에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존 욕구, 대박욕구, 소비욕구, 성취감 경험, 보상동기 등과 같이 욕구 및 동기와 같은 개인 내적 심리적 기제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승민, 2005). 따라서 사람들이 충족하고 있는 욕구 및 동기들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것은 인터넷을 병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저의 원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특히, 동기강화상담이 다양한 중독행동에 있어서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Arkowitz, Westra, Miller, & Rollnick, 2008), 개인에게 내재되어있는 변화를 향한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 동기에 초점을 두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와 안녕감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Deci와 Ryan (1985)의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이 있다.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은 세 가지의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촉진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지금까지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은 주로 교육, 육아, 건강관리, 친밀한 관계, 종교적 행위, 신체적 운동, 정치적 행위, 그리고 환경 친화적 행위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Deci & Ryan, 2000). 비록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을 인터넷 중독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영양분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심리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격과 인지구조에서의 성장과 심리적 안녕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김아영, 2010). 이와 같이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은 심리적 건강과 안녕감과의 역동적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서 개인의 성격발달과 특수 상황에서의 행동과 경험의 질적 측면에서 최적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조건을 예측하는 기초를 제공한다(Ryan & Deci, 2002).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의 어느 한 측면이 욕구충족을 허용하는 만큼 개인의 과제 참여, 숙달, 종합하는 정도가 결정되고, 반면에 그것이 욕구충족을 방해하는 만큼 개인의 동기, 성장, 존엄성과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며(Ryan & Deci, 2002) 직무상황과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ard, Deci, & Ryan, 2004).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의 충족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터넷 중독에 적용하여, 세 욕구를 충족되지 않으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자율성 욕구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조절할 때에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욕구이다(Ryan & Grolnick, 1986). 자율성은 행동선택의 자유와 그것을 유지해 갈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이 자율적 동기의 상태에서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진로계획을 세워갈수록 무작정 인터넷을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인터넷 활동에 집착하거나 내성, 금단증상을 가지거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반면, 공부에 무관심하며 공부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중요 타자들의 압력에 떠밀려 억지로 학교에 다

니는 무동기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현실생활에서 통제감이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들을 인터넷 활동을 통해 보상받고자 인터넷 사용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Suler, 1996). 즉, 무동기와 중독전체와 정적상관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무동기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즉, 강박적 사용, 생활 장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은주(2011)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서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 군이 부모 감독 및 통제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춘애, 박철욱과 이은경(2008)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많이 통제할수록 인터넷에 더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기숙과 김경희(2009) 연구에서는 부모가 감독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능감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1985). 유능감은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자체라기보다는 개인이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성 욕구는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충족된다(김아영, 2010; Ryan & Deci, 2002). 다시 말하면, 도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유능감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효능감을 촉진시키면서 내재적 동기를 가져오게 된다(Ryan & Deci, 2000). 이와 같이 유능감과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영역에서 획득되어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다(Deci & Ryan, 2000). 그래서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선행연구(김은영, 2007; 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들은 유능감을 자기효능감의 개념, 즉,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 1996)과 비슷하게 사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현실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성취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ler, 1996). 반면, 현실세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다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고 가상공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에(Kraut & Patterson, 1998)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가상공간에서의 유능감의 추구로 나아가게 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위험사용자가 일반사용자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황혜리, 류수정, 2008), 자신감, 자기조절력, 과제난이도와 같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에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주세진, 2008).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해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가상세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 2005).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해연, 2001)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윤진, 2002).

관계성은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 관계적 유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성이 다(Baumeister & Leary, 1995). Suler(1996)는 가상 공간에서의 만남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보았고, Young(1996)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외롭거나 고독한 사람일수록 누구와도 상호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송원영, 1999; Martin & Schumacher, 2000)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보다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낀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족의 지지가 약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2), 가족응집력이 인터넷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탈출구로 인터넷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심란희, 2004). Young (1999)은 중독자들이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 간혀 있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Lin, Lin과 Wu(2009)는 가족과의 여가활동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친구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도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2; 장재홍 등, 2002), 게임중독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며, 친구와의 불화나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아, 2001).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낮지만 교사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복희, 2001).

최근 들어서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관한 연구는 세 욕구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방향에서 세 욕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Hahn & Oishi, 2006). 특히,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관계성이 적응과 성취,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주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아영,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기초한 국내연구들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기본심리욕구충족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많지 않다(김아영, 20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욕구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접경로를 살펴보고 매개변수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류진아, 김광웅, 2004). 이 이론의 창시자인 Ryan과 Deci (2000)는 유능감 지각 이전에 자율성 지각이 선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즉, 자율성 지지 환경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율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유능감을 지각할지라도 최적의 기능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유능감은 자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Ryan(1982)은 유능감을 촉진시키는 선행변인으로 자율성을 제시하였

고 Williams, McGregor, Zeldman, Freedman과 Deci(2004)는 자율성이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문은식(2007)의 중학생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지지 행동은 학생의 유능감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은식과 강승호(2008)의 고등학생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유능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행동들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자각은 미래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예견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개인의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성에 대한 욕구충족은 유능감에 비해 내재동기 증진에서 원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적 원인의 내재화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Ryan & Deci, 2000). 송원영(199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실 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유능감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와 통합적인 부분을 이루고,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유능감의 한 부분이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능감이 자율성,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성차는 많이 다루어져 온 변인이다. 인터넷 중독수준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고(김신욱, 2010)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중독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Martin & Schumacker, 2000). 2010 인터넷 중독실태조사에도, 남자는

인터넷 중독률이 8.9%, 고위험군 1.6%, 잠재적 위험군 7.4%, 여자는 인터넷 중독률이 6.9%, 고위험군 1.3%, 잠재적위험군 5.6%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들이 남성이 여성보다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시형 등, 2000; Chou, Chou, & Tyan, 1999). 따라서 남녀 청소년들을 동질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김은정 등, 2003; 장재홍 등, 2002; Griffiths, 1997).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의 발생과 완화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등과 같은 변인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였고(이지향, 김광웅, 2005; Canter, 1982), 자기효능감은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향, 김광웅, 2005).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모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이수진, 2005). 단일모델에 관한 연구도 인터넷 중독의 단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중재와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중독 관련개입은 다양한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이론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측변인들의 매개경로를 설명해줄 수 있는 종합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종합모델은 단일모델에서 밝혀질 수 없었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들의 상호영향력과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의미 있는 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기초하여 종합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예측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또는 중재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 변인을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초하여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변수 중 어떤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다집단 분석을 사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인터넷 중독 구조모형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다면 집단별로 어떤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사회구조적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구조모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 연구방법

###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3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727명의 자료를 표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하고 총 72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남녀별분포는 남학생이 248명

(34%), 여학생이 474명(66%)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264명(36%), 2학년이 185명(26%), 3학년이 273명(38%)이었다. 설문지는 수업시간에 참여자들에게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 측정도구

####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S-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2년 한국정보화진흥원(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이 정보통신부 지원하에 국내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한국판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S척도: K척도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6문항(예를 들면,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 긍정적 기대 1문항(예를 들면, 인터넷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금단 4문항(예를 들면,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가상적 대인관계지향 3문항(예를 들면, 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일탈행동 2문항(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내성 4문항(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이다. 김청택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955로, 본 연구에서는 .802로 나타났다.

###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명희(2008)가 기존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기본심리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Deci와 Ryan의 기본 심리욕구척도는 하나의 일반적인 영역의 척도와 특정한 영역, 즉, 직업 영역, 인간관계영역,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이명희(2008)가 한국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관련하여 제작된 추가문항에 대한 예비검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자율성 6문항(예를 들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유능감 6문항(예를 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관계성 6문항(예를 들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희(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자율성이 .702, 유능감이 .750, 관계성이 .7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35, .806, .799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척도의 실시를 위해서 표집대상이 되는 학교별로 척도협조자로서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척도 협조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고 설문지 실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조사항을 협조자에

게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척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2011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 를,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모형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고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먼저 인터넷 중독 척도는 각 하위 요인별로, 나머지 척도는 각 척도별로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든 이후에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꾸러미는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각각 세 개의 측정변수로 묶었다. 각 문항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의 평균이 동등하도록 문항을 배분하였다. 각 측정변수별로 왜도, 첨도와 이상치 등을 점검한 후에 자료의 결측치는 기대-최적화(Expectation-Maximization)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욕구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모형에 기초하여 검증하였고 남녀별로 구조모형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구조동일성 검증을 한 후 경로계수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통계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성별에 따른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간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학생의 변수간 상관을 나타내며, 오른쪽 위는 여학생의 변수간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 집단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볼 때 서로 대각에 해당하는 것이 남녀간 동일 변수 상관을 나타내는데 대부분 남녀집단간의 상관계수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남녀별 구조모형 검증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모든 성취행동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형의 행동들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유지선, 2004) 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자율

성과 관계성이 매개효과 없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구성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율성, 관계성이 유능감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본모형으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직접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안모형으로 구성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1).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모형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남녀 집단별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은 대안모형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에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무엇인지, 여학생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집단에서 그 모형이 동일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남녀에 따라 구조모형이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모형,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동일한지 알아보았다. 대안모형은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고 기본모형은 자율성, 관계성이 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표 1. 남녀별 측정변수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인터넷 중독	남	
						M	SD
	자율성	1	.567**	.541**	-.342**	12.649	2.319
	유능감	.496**	1	.665**	-.250**	11.930	2.509
	관계성	.362**	.503**	1	-.264**	13.303	2.470
	인터넷 중독	-.321**	-.143**	-.111*	1	7.590	2.658
여	M	12.879	11.661	14.023	6.636		
	SD	2.268	2.305	2.001	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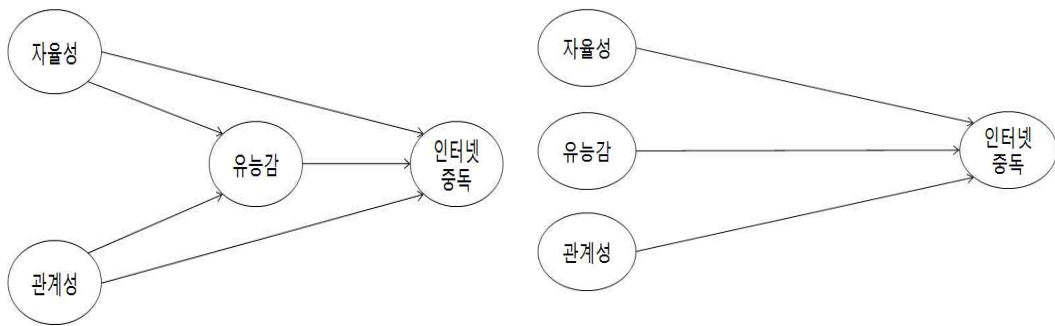


그림 1. 기본모형과 대안모형

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기본모형을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을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두 모형 중에서 더 좋은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RMSEA, TLI 등 자유도가 다른 모형을 비교할 때 적절한 적합도 지수와 함께  $\chi^2$  값 변화에 대한  $\chi^2$  차이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다(홍세희, 2001).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의 경우,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해보면  $\Delta\chi^2(3)=250.428$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 이 결과는 대안모형에서 제

외된 경로는 구조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RMSEA가 .136, TLI가 .682로 대안모형에서 적합도가 나빠져서 기본모형이 대안모형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해보면  $\Delta\chi^2(3)=274.664$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 그리고 RMSEA가 .108, TLI가 .738로 대안모형에서 적합도가 나빠져서 기본모형이 대안모형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기본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었으며 두 집단

표 2.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chi^2$	df	RMSEA (90% 신뢰구간)	TLI
남자-기본모형	233.586	84	.085 (.072-.060)	.876
남자-대안모형	484.014	87	.136 (.124-.148)	.682
여자-기본모형	294.569	84	.073 (.064-.082)	.882
여자-대안모형	569.233	87	.108 (.100-.117)	.738

의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율성, 관계성이 유능감은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모형이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요인계수는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측정변인들이 같은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는 기저모형

(모형1)과 두 집단사이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을 서로 비교한다. 기저모형은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모형이며, 이 모형의  $\chi^2$ 값과 자유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각각에서 얻은  $\chi^2$ 값과 자유도의 합이 된다.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사이에 각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chi^2$ 값과 자유도를 기저모형의 값들과 비교한다. 표 3과 같이 기저모형(모형1)과 측정동일성 모형

표 3.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비교

	$\chi^2$	df	RMSEA (90% 신뢰구간)	TLI
모형1: 기저모형	528.257	168	.055 (.049-.060)	.879
모형2: 측정동일성	568.260	179	.055 (.050-.060)	.879
모형3: 구조동일성	573.758	184	.054 (.049-.059)	.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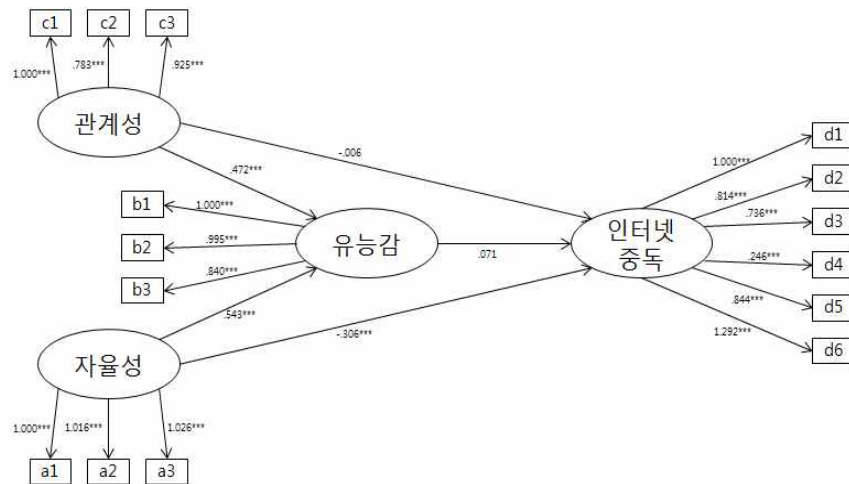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모형2)의  $\Delta x^2(11)=40.003$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p<.001$ ) 측정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chi^2$ 검증과 마찬가지로  $\chi^2$ 차이검증도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Steenkamp & Baumgartner, 1998) RMSEA와 TLI를 함께 고려하였다. 표 3에서처럼 RMSEA는 .055, TLI는 .879로 나빠지지 않아서 측정동

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 되었으므로 구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는 두 집단에 대한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모형을 분석한다.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상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하면 모형의 적합도는 설명력이 떨어진다(홍세희, 2001). 표 3과

표 4. 남녀집단별 경로계수

변수간 경로			경로계수(남)	경로계수(여)
자율성	→	인터넷 중독	-.306(-.426)***	-.306(-.546)***
유능감	→	인터넷 중독	.071(.121)	.071(.149)
관계성	→	인터넷 중독	-.006(-.010)	-.006(-.011)
자율성	→	유능감	.543(.442)***	.543(.462)***
관계성	→	유능감	.472(.487)***	.472(.417)***
자율성	→	a1(자율성 1)	1(.673)***	1(.699)***
	→	a2(자율성 2)	1.016(.671)***	1.016(.642)***
	→	a3(자율성 3)	1.026(.717)***	1.026(.722)***
관계성	→	c1(관계성 1)	1(.824)***	1(.755)***
	→	c2(관계성 2)	.783(.708)***	.783(.653)***
	→	c3(관계성 3)	.925(.804)***	.925(.783)***
유능감	→	b1(유능감 1)	1(.772)***	1(.801)***
	→	b2(유능감 2)	.995(.777)***	.995(.795)***
	→	b3(유능감 3)	.840(.750)***	.840(.717)***
인터넷 중독	→	d1	1(.826)***	1(.770)***
	→	d2	.814(.555)***	.814(.581)***
	→	d3	.736(.805)***	.736(.736)***
	→	d4	.246(.406)***	.246(.449)***
	→	d5	.844(.657)***	.844(.640)***
	→	d6	1.292(.825)***	1.292(.793)***

주. (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임

\*\*\*p<.001

같이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과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모형3)의 비교결과  $\Delta\chi^2(5)=5.498$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1$ ). 또한 표 3에서처럼 구조동일성 모형의 RMSEA가 .054로 좋아지고 TLI가 .881로 좋아져서 구조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남녀 집단 간의 구조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는데 남녀 모두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모형을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기초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B=-.306$ )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자율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자율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문제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 최연실 등(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이 저해될 경우 인터넷 몰입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기강화상담에서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책임은 내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Miller &

Rollnick, 2002), 상담자가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의 변화가 밖에서 부과되어 자율성 없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면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여 자율성 및 자기통제력 향상을 돕는다면 인터넷 중독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B=.071$ )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만제(2009)의 연구에서는 어려움 극복 유능감과 자기주장 유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민정(2000)의 연구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 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적 사용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송원영과 오경자(1999)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유능감과 대인관계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유능감 척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능감을 어려움 극복 유능감, 자기주장 유능감, 개인적 유능감, 대인관계 유능감과 같은 하위척도로 세분화하지 않고 욕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유능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관계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B=-.006$ )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서승연, 이영호(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관계성에 관한 개념과 관

계성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자기 결정성동기이론에서 관계성은 개인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격동기(distal motivation)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특수한 영역에서(domain-specific)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접동기(proximal motivation)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인터넷 중독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domain-specific)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근접동기(proximal motivation)로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성 척도가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원격동기(distal motivation)로서 측정하였고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은 친구의 지지가 없는 외로운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혼동이 결과에 반영되어 모형에서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가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애착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Samuolis, Layburn, & Schiaffino, 2001)과도 불일치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인터넷 중독이라는 특수한 상황(domain-specifi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접동기(proximal motivation)로서 구체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만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근거한 교육현장에 대한 적절한 함의가 도출될 수 있고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높은 변인들을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과 상호작용하는 예측변인들의 경로를 검증하였다. 개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모형을 실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적 자료의 축적이나 인터넷 중독군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녀별로 인터넷 중독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율성만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상담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의 기제를 이해하고 진단하고 중재하는데 유용한 체계를 제공해 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인근지역의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표집대상이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전체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표집

대상을 확대하는, 즉,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척도는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척도로써 세 가지 욕구의 내용을 보다 섬세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한 세 가지 욕구척도가 개발된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세 가지 욕구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자기보고식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기보고식 관찰은 자신의 좋은 점은 극대화시키고 좋지 않은 점은 극소화시킬 수 있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경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중독성향이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설문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제 3자 관찰방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진단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측정방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는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관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이수진, 2005)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자들의 자아관련변인을 더욱 장기적으로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요한 원인별로 인터넷 중독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중독 및 과다사용으로 상담을 실시할 경

우,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게 한 후 인터넷 중독을 통해 충족하고 있는 학생의 욕구를 명확히 확인한다면 그 문제 원인에 맞춰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재환 (2005). 심리적, 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중독간의 관계: 대인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신, 김진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관계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 15-25.
- 김기숙, 김경희 (2009). 초등학교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변인. 아동간호학회지, 15, 24-33.
- 김신옥 (2010).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 실태 및 요인분석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동기이론과 현장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 3, 583-609.
-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5). 폭력적 컴퓨터 게임과 공격적 비행, 인터넷 비행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359-377.
- 김은정, 오승근, 이세용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 125-139.
- 김종원, 조옥귀 (2002). 중, 고등학교의 자기통

- 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 1-15.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노안영, 정민 (2011). 우울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측변인들. *상담학연구*, 12, 355-371.
- 류진아, 김광웅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 65-80.
- 문은식 (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1, 459-475.
- 문은식, 강승호 (200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2, 1-15.
-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가족과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41-51.
- 박승민 (2005). 온라인 게임 파다 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희서 (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5, 193-200.
- 백미영 (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승연, 이영호 (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391-405.
-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1999). 자기 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오경자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 99 하계학술대회, 127-132.
- 심란희 (2004).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만제 (2009). 대인 커뮤니케이션 특성 및 자아성향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커뮤니케이션 회피성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1, 29-127.
-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육구 척도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진 (2005).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 175-192.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정연, 최영선 (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 11, 335-346.
- 이정윤 (2005). 인터넷 중독 하위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2, 43-61.

- 이지향, 김광웅 (2005).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 변인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3, 15-32.
- 이해경 (2002).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중독을 예측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55-79.
- 장재홍, 유정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 709-726.
- 정경아 (2001). 게임중독 청소년의 특성분석: 게임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주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 및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해연 (2001).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특성 변인간의 관계. *교육논평*, 17, 109-133.
- 주세진 (2008). 초등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영향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7, 46-54.
- 최민정 (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우울감,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복희 (2001). 인터넷 중독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홍윤진 (2002). 자기효능감과 가상공간에서의 현실지각수준이 인터넷 몰입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리, 류수정 (2008).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자기 통제력,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효능감, 외로움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321-34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kowitz, H., Westra, H. A., Miller, W. R., & Rollnick, S. (2008).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the treatment of psychological problem*. New York; Guilford press.
-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2045-2068.
- Bandura, A. (1996).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Canter, R. J. (1982). Family Correlate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20, 149-

- 167.
- Chou, C., Chou, J., & Tyan, N. N. (1999).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net addiction, usage and communication pleasure-the Taiwan's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lecommunication, 5*, 47-64.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Griffiths, M. D. (1997).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ical.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Hahn, J., & Oishi, S. (2006). Psychological needs and emotional well-being in older and younger Koreans and America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689-698.
- Holden, C. (2001). Behavioral addictions: Do they exist? *Science, 294*, 980-982.
- Hur, M. H. (2006). Demographic, Habitual, and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tion disorder: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teenagers. *Cyber psychology & Behavior, 9*, 514-525.
- Kraut, R., & Patterson, M. (1998). Internet Paradox: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7-24.
- Lin, C. H., Lin, S. L., & Wu, C. P. (2009).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leisure boredom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dolescence, 44*, 993-1004.
- Martin, J. M., & Schumacker, P. (2000).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omputer in Human Behavior, 16*, 13-29.
- Miller, W. R., & Rollnick, S. (2002). *Motivational interviewing: Preparing people for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Ru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50-4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Groln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0-558.

- Samuolis, J., Layburn, K., & Schiaffino, K. M. (2001). Identity development and attachment to parent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373-384.
- Steenkamp, J. 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Suler, J. (1996). *As interview by Morris Jones from internet Australian magazine*. <http://rider.edu/users/suler/psychber/psycyber.html>.
- Williams, G. C., McGregor, H. A., Zeleman, A., Freedmand, Z. R., & Deci, E. L. (2004). Test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rocess model for promoting glycemic control through diabetes self-management. *Health Psychology, 23*, 58-66.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MJ, 7*, 351-352.
- Young, K. S., & Case, C. J. (2004). Internet abuse in the workplace: New trends in risk management.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7*, 105-111.
-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8. 02.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8. 06.

## The Effect of Three Needs i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eory on Internet Addiction

Eun-Young Kim

Dong Seoul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in relation to the three needs variables-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on the basis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ccording to the model, the influences of autonomy and relatedness on internet addiction are mediated by competence. The study samples were composed of 722 students(men 248, women 474). The KS-Scal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scale were used. The alternative models suggest relatedness, autonomy and competence have an influence on internet addiction without any mediation effect. Multi-group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difference investigations about internet addiction models between men and wome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e effect of only the autonomy variable on the internet addi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eory